



참사람 36.5°C

Vol. 37 | 2024년 2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CONTENTS 목차

발행일

2024년 2월 2일 금요일
Monthly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참사람 36.5°C 온라인
chamsaram.org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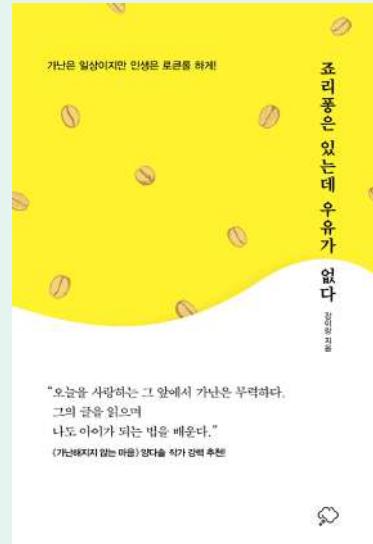
올해도 어김없이 설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친지가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누는 시기,
참사람 36.5°C 2월호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참사람을 말하다'를 통해
조금 특별한 가족의 명절 풍경을
전합니다,
더불어 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04

참사람을 말하다
평범한 위탁가족입니다

글 _ 배은희
시인/칼럼니스트



10

책으로, 참사람으로
나만의 씨앗으로 꿈을 이루어 가는 삶
고양 오마중학교 임조안

‘조리퐁은 있는데 우유가 없다’ 소개
글 _ 이은주 작가 책갈피 도서선정위원



16

**2024 체인지 청소년
한일교류 현장 스케치**



08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친구, 그 깊은 이름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김현



14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새뱃돈 관리는 어떻게?
청소년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돋는
어플리케이션 TOP4

평범한 위탁가족입니다





배은희 ('천사를 만나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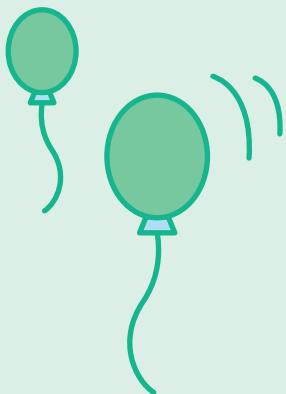
시를 통해 인생을 다채롭게 보는 방법을 배웠고,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을 가르쳤다.

두 아이를 다 키우고 삶에 여유가 생겼을 즈음, 생후 11개월 된 막내 아이를 위탁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더, 오래'에 '배은희의 색다른 동거'라는 이름으로 위탁가족의 일상을 2년간 연재했으며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새롭게 하소서', EBS 다큐 '어린인권' 등에 출연해 위탁제도를 알렸다.

온라인 카페 '평범한 위탁가족입니다'를 운영하며 위탁가족들과 소통하고 있다.



떡국을 먹었다. 고명이 올려진 떡국을 호호 불어 먹었다. 뜨끈한 덩어리가 입안에서 포근히 뭉개졌다. 어린 내 어깨는 으음, 하는 감탄과 함께 흐뭇하게 올라갔다. 첫눈이 소복이 내린 날, 제일 먼저 눈을 밟는 설렘과 행복이 떡국 가득 들어 있었다. 명절 내내 들떠 신이 났었다.

어른이 된 후의 명절은 어릴 때 받아 누리던 걸 갚아내는 시간이었다. 음식을 먹기보다 만들어야 하는 날이었고, 돈을 받기보다 주는 날이었다. 먼 거리를 오갈 생각에 미리 지치기도 하는 썩 달갑지 않은 연휴였다.

명절을 조금 자유롭게 보낸 건, 제주도로 이사하면서부터다. 항공료가 가장 비쌀 때라 매번 올라갈 수가 없었다. 마침 보육원 아이들과 그림책 수업을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툭, 물었다.

“설에 뭐 할거야?”

“예? 그냥 있죠!”

너무 당연하다는 듯, 시큰둥해하는 아이들과 조촐한 명절을 보내기 시작했다. 집에서 떡국을 끓여 먹고 보드게임을 했다. 눈이 오면 눈싸움도 하고, 하룻밤 같이 자면서 소곤소곤 보름달 같은 수다를 떨었다.

그때 만난 아이들이 오랫동안 연락해 왔다. 보육원을 퇴소한 후에도 종종 전화해서 “여자 친구가 생겼어요”, “대학 가요”, “취업했어요”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따뜻한 기억 때문에 나는 제주에서 위탁엄마가 되기로 했다. 한 생명을 내 품에서 키울 수 있다면 내 인생도 가치 있을 것 같았다.

위탁엄마라고 하면 다들 되묻는다. “위탁이 뭐예요?”, “입양 가기 전에 잠깐 맡아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나요?”, 그때마다 나는 ‘입양제도’와는 다른 ‘가정위탁제도’를 설명한다.



가정위탁제도란, 친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등으로 친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검증되고 교육받은) 가정에 위탁하는 것이다. 친부모의 사정에 따라 단기나 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도 있다.

입양과 위탁의 가장 큰 차이라면 입양은 내 자식, ‘자’가 되는 것이고, 위탁은 ‘동거인’이 되는 것이다. 참 모호한 표현이다. 동거인… 생후 11개월에 만난 은지는 올해 열한 살이 되었는데, 등본을 떨 때마다 ‘동거인’이라는 세 글자가 유독 아프게 읽힌다.

한번은 은지 휴대폰을 개통해 주려고 매장에 찾아갔었다. 담당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딱 잘라 말했다. “안 됩니다. 친부모가 오셔야죠!” 서류상 동거인인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동거인이라서 휴대폰 개통도 안 되고, 은지가 수술을 받게 되면 보호자란에 사인도 할 수가 없다. 여권을 만들어도 딱 한 번만 사용하는 일회용 여권밖에 만들 수 없다. 와, 이건 불편이 아니라 불공평 아닌가? 우린 가족인데!

은지는 말을 배울 때부터 엄마, 아빠, 오빠, 언니라고 불렸다. 일상은 평범한 가족인데, 서류상 동거인이라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현실과 행정은 바다와 육지만큼 아득해 보인다. 좌절하지 말자, 당당하게 요구하자, 하면서 혼자 민원을 넣고 제보도 해봤지만 변화는 없었다.

위탁가족으로 10년을 살다 보니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다. “처음부터 혈연인 가족이 어딨어요?” 따지기도 한다. 부부도 남남이었다. 20년 넘게 따로 살았다. 성도 다르고, 가정의 문화도 다른 남녀가 ‘사랑’해서 가족이 되었다.

그렇다, 가족의 출발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다. 위탁가족도 사랑으로 시작 된 가족이다. 서로 성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지만 우리집 아이들은 사랑으로 잘 자라주었다. 은지를 안고 매일 씻기면서 더 애恸해졌고, 같이 먹고 같이 자다 보니 어느새 닮아버렸다.



은지는 오늘도 내게 달려와 말한다.

“엄마, 사랑해요.” 화장실에 있다가도, 잠을 자려고 누워있다가도 “사랑해요.”, “엄마, 사랑하고, 축복해요!” 수십 수백 번 고백한다.

이렇게 수시로 사랑 고백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표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랑을 발견하게 해 준 게 은지고, 그 사랑을 키워갈 수 있게 해 준 게 은지다. 나는 은지를 통해 사랑을 배웠다.

은지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다. 한번은 숨이 차게 뛰어와서는 땀에 젖은 머리칼을 넘기며 물었다.

“엄마, 나도 엄마 벗속에 있을 때 배가 이렇게 뚱뚱했어요?”



은지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 어서 말하라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적잖이 당황했었다. “아…, 그, 그래. 아이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시원찮은 대답을 해 준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든 은지를 토닥이는 데 미안함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렀다. “은지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 엄마 배가 엄청 뚱뚱했을 거야. 얼마나 뚱뚱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낳아준 엄마 만나면 꼭 물어보자!”

까무룩 잠들어버린 은지를 새벽 내내 품에 안고 잤다. 내 배가 불러서 은지를 낳진 않았지만, 매번 가슴이 찢어지며 은지를 낳고 또 낳는다. 그래야 비로소 엄마가 되어간다는 걸 깨달았고. 이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믿는다.

은지는 지금까지 친엄마를 네 번 만났다. 열아홉에 은지를 낳고, 스물에 은지를 위탁 보낸 엄마는 은지 눈에도 젊어 보였나 보다. 은지는 친엄마를 처음 만난 날 줄곧 하얀 옷 입은 ‘언니’라고 불렸다.

“그 언니가 있잖아, 스티커 책도 사줬는데?”

그래, 한번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왔고, 한번은 배가 불룩한 모습으로 나왔지. 또 한번은 비가 오는 날 아기를 데리고 왔고, 마지막 한 번은 엄마가 사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만났지.

그때도 은지는 생모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후엔 낳아준 000엄마와 길러준 배은희 엄마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000엄마 만나면 이거 줄 거예요.”

은지는 작은 종이 가방에 연필이며 지우개, 스티커를 모았다. 보물처럼 모은 선물을 3년 째 전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행동이 은지에게 조금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 지켜보고 있다.

위탁아이들은 친가정이 회복되면 떠난다. 낳아주신 부모님과 회복된 가정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은지도 돌아갈 날이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위탁 초기엔 미리 걱정하고 미리 슬퍼했다.

친가정의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기간을 연장하다가 보호 종료가 되는 아이들이 더 많다. 친부모가 아프기도 하고,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새로운 어려움에 빠지거나, 재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은지도 친가정으로 돌아갈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나 또한 은지를 떠나보낼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동거인’으로라도 같이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은지와 명절을 보내고, 은지와 여러 번 떡국을 먹고, 같이 둉굴뒹굴 살 수 있길 바란다.

은지의 사춘기를 함께 보내고, 연애사를 듣고, 입학과 취업을 같이 고민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긴긴 과정을 함께하고 싶다. 난 은지의 두 번째 엄마로 은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어른이고 싶다.

이젠 미리 걱정하거나 슬퍼하기보다 같이 있는 시간을 감사하고 즐기려고 한다. 믿는 만큼 자랄 은지에게 믿음을 주고, 파도 같은 은지의 사랑에 고마워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

벌써 2월이다. 이번 명절엔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려고 한다. 곱게 한복을 입은 은지는 또 얼마나 예쁠까? 우리끼리 보낼 소소한 연휴가 기대된다.

위탁가족의 평범한 명절이 이렇게만 이어지길 소망하며.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친구, 그 깊은 이름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김현



제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된 저에게, 여전히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을 주는 친구. 늘 저를 보살펴 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나 오늘까지 단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때에는 어머니께서 저를 업어서 등하교를 시켜 주셨는데 3학년이 되어 그 친구를 만나고서는 친구가 저의 손을 잡고 부축하여 매일 등하교를 도맡아 주었지요.

등하교 뿐 아니라 친구들이 노는 곳에도 데려가고, 휴일에도 저를 만나러 와서 시간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 덕분에 소풍과 운

동화, 수학여행의 추억도 가질 수 있었고, 학교의 배려 덕분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과 짹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중학교 진학은 추첨제였음에도 교육청의 배려로 그 친구와 저는 같은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가 중요한 시기였지만 그 친구는 저를 보살피는 것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도 참 훌륭하셔서, 아들이 저를 위해 희생함에도 흔쾌히 응원을 보내주시던 멋진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한 감사한 마음으로 친어머니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당시 선발제였던 진학 제도 탓에 그 친구와 학교가 갈려야 했습니다. 학교는 엇갈렸지만 그 친구는 하교하고 나서의 시간, 그리고 휴일의 시간들을 저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덕분에 영화관도 자주 갈 수 있었고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그 친구는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을 물놀이 사고로 잃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친구가 오열하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그럼에도 친구는 슬픔을 딛고, 변함없이 저를 부축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남동생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친구에게 동생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시기 꿋꿋하게 참아내던 친구를 바라보며 그 많은 서러움을 어찌 달래고 있을지 싶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어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친구는 일을 하다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어머니께서 학교에 차로 데려다 주시면 동기들이 제 강의실 이동과 여타의 이동도 항상 도와주었습니다. 친구는 휴가를 나오면 집에 가기 전에 먼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참 여전했던 우정.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는 해준 것도 없는데... 베풀기만 했던 친구인데... 그럼에도 항상 먼저 저를 찾아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첫 딸을 낳아 부부가 함께 딸을 안고 저희 집에 왔을 때의 흐뭇함과 기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뒤, 아들을 얻었을 때도 친구는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세상을 떠난 친구 남동생의 얼굴이 보여, 친구는 남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친구는 가장의 무게로 이전처럼 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절친이자 단짝이고 변함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친구는 아들을 보내어 저의 생활을 둘째 합니다. 제 아빠를 꼭 닮고 친구 동생의 얼굴도 고스란히 가진 아들은 저를 평소 ‘아버지’라 하고, 친구와 함께 있을 때면 ‘작은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참으로 가슴 찡한 호칭입니다. 제 아빠를 꼭 닮아 희생적이고 깊은 마음을 가진 아들 찬이는 그처럼 대를 이어서 저에게 은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 든든합니다. 평생의 은인인 친구가 저를 지켜주고, 친구의 희생심을 이은 아들도 저를 지켜줄테니까요. 친구와 저의 남은 인생, 그리고 친구 아들의 멋진 인생을 기대합니다.

‘조리퐁은 있는데 우유가 없다’를 읽고
나만의 씨앗으로 꿈을 이루어 가는 삶

고양 오마중학교 **임조안**

사랑하는 동생에게

안녕 지강아? 누나야. 오늘은 너의 인생 선배로서 ‘조리퐁은 있는데 우유가 없다’라는 책을 소개해주려고 해. 한번 들어볼래? 이 책은 동화책을 쓰시는 강이랑 작가님이 꿈이라는 길을 선택하며 경험하는 기난, 일상 속의 행복, 이웃, 그리고 동심에 대해 서술하신 수필이야. 내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책을 훑던 중 이 책의 두 번째 장 제목이 인상 깊었기 때문이야. ‘내가 쓸 수 있는 씨앗을 세는 날들’이라는 제목이었어. 이 제목이 무슨 뜻일지 너도 조금은 궁금해하지 않아?

누나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강이랑 많이 놀지도 못하고 시간도 많이 같이 보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이 편지로 꿈의 의미를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지강이 생각이 났거든. 작가님께서 어린이들과 교감하시는 장면에서 아이들 특유의 동심과 순수함이 인상 깊었어. 그때 ‘우리 동생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떠올랐지.



생각해보니까 누나도 지강이랑 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교감하는 너와 나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 누나는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많았기에 합리적인 장래 희망을 고민했었어.

그래서 사실은 지강이가 축구 선수를 꿈꾼다고 할 때 충분히 이해하고 응원해주지 못한 것 같아. 하지만 누나는 속으로 항상 너의 자유로운 꿈이 부럽기도 하고 그 꿈을 응원해! 이 책의 작가님도 본인의 꿈을 펼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신 분이라 이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지강이도 꿈을 이루어낼 용기를 가졌으면 해!

꿈이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니? 누나는 ‘성공’, ‘명예’ 등이 떠올랐어. 그런데 강이랑 작가님은 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셨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명예로운 직업과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의사, 판사 등 안정적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으며 돈도 많이 버는 직종을 요구해. 그런데 누나와 지강이의 꿈은 사실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 누나는 아직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문과 쪽이라는 것. 지강이는 축구 관련된 일을 하거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잖아.

지강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자. 이 책의 작가님도 그러셨어. 작가가 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해.

강이랑 작가님은 어린이 동화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곧장 일본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투자 지원을 받으며 동화를 창작하고 계셔. 이렇게 두려움 없이 꿈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용기, 너무 부럽고 본받고 싶지 않니?

더 위대한 것은,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사시는 그 와중에도 베푸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지. 주변에서 지인들이 생필품, 먹을거리 등을 나누면 일본어 수업을 해주고 나중에 다른 물품을 나누는 방식으로 꼭 보답을 하셨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 이웃과 나누며 꿈을 이뤄나가는 삶은 결코 가난해 보이지 않아.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과 행복을 놓지 않고 꿈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은 자유로워 보였어. 그런 자유, 우리도 누릴 수 있어. 강이랑 작가님처럼 용기를 가져보자.

강이랑 작가님은 내게 꿈은 꼭 사회적 성공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누리는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어. 실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나는 솔직히 나의 꿈을 이뤄나갈 과정이 조금은 두려워.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용기가 생겼어. 작가님께서 증명해주셨으니까. 환경은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일 수 있다는 것을.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쫓다 보면 꿈은 이뤄진다는 것을. 우리도 한번 용기를 가져보자!



꿈을 이루며 살아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심을 잃지 않는 것 같아! 동심의 의미를 알고 있니? 동심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의미야. 강이랑 작가님은 이 동심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셨어. ‘나와 다른 존재를 귀하게 대하고, 우열을 가리지 않는 마음(종료) 함께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마음’라고 말이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뜻하지. 작가님은 이러한 동심 덕분에 ‘역시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셨어. 강이랑 작가님은 동화를 쓰면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셨거든. ‘어린이들이 나의 스승’이라고 언급하시기도 했어.

또한 함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 누나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 달았던 말이 있어. 이 책 62p에 있는 한 문단이야. ‘나는 계속 슛을 던진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던지다 보면 언젠가 공이 들어갈 테니까. 던지지 않으면 골인 찬스조차 없다. 무엇보다 나는 쓸 만한 공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공이 반드시 골대에 도달하리라는 믿음이 있다.’ 강이랑 작가님이 힘들게 꿈을 이루시며 깨달은 많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명언이야.

네가 좋아하는 축구로 말해보자면 키가 170cm밖에 되지 않는 메시가 포기하지 않고 세계 최고 축구 선수가 된 것처럼 말이야. 모두 넘어지게 되어있으니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가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거겠지? 두 번째로 강이랑 작가님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셨어. 또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애정, 사랑도 충만하시지. 메시는 ‘돈은 내 플레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내 발에 공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낄 뿐이다. 나는 그저 축구를 사랑할 뿐이다.’고 했는데 작가님은 ‘나는 그림책을 사랑한다.’고 하셨어. 성공의 기회는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실력으로 보장되는 자신감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 동심을 되찾으면 본인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여주가 무엇인지 아니?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채소라고 하셨어. 우연히 이 채소를 발견했는데 못 먹는 부분이 없는 여주는 작가님께 도움이 되었고 놀라운 기쁨이 되었다고 해. 책에는 ‘여주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



이 등장하는데 예상치 못할 때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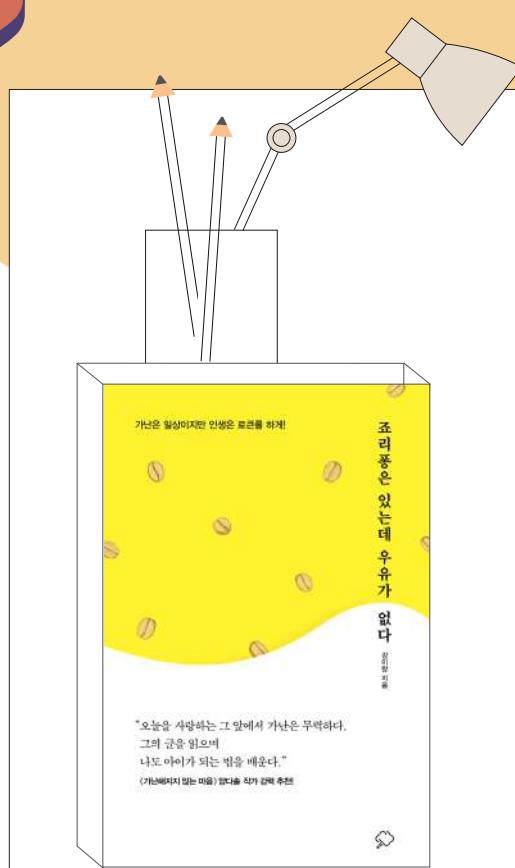
드디어 이 책에서 정의하는 ‘씨앗’을 알려줄 차례가 되었어. 씨앗이란 본인이 나눌 수 있는 재능을 뜻해. 많은 사람들은 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아름답게 피어서 씨앗을 뿌리고 세상에서 사라지지. 근데 그 씨앗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씨앗들은 곳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끊임없이 다시 새로운 꽃들을 탄생시키는 거야. 작가님은 동화를 쓰는 재능, 본인의 씨앗을 발견하셨어. 누나와 지강이도 우리들의 씨앗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성공이 곧 행복이라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작가님의 인생 스토리를 읽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 성공, 그리고 행복은 자신이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걸. 내가 생각했던 성공은 사회적 성공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고 행복은 나눔과 동심을 누리는 삶이었던 것 같아. 누나는 이 책을 읽고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필요성을 느꼈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지 행복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누나는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힘들 때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이 더욱 와 달았어.



가난이라는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고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작가님의 용기가 부럽고 본받고 싶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앞으로 살아나갈 인생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배울 수 있어서 너에게도 이 내용을 전하고 싶었단다. 길고 길었던 누나의 이야기를 읽으며 너도 조금이나마 꿈에 대한 갈피를 잡기를 원한다. 마음껏 꿈꾸며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자! 지금까지 읽어줘서 고마워. 그러면 안녕!



‘조리퐁은 있는데 우유가 없다’는 어떤 책?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삶에 대하여

에세이 속 작가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가에게는 더운 여름을 이겨낼 선풍기를 선물해 주는 친구가 있고, 삶은 옥수수를 나누는 이웃이 있고, 받은 옥수수를 나눠줄 후배가 있습니다. 조리퐁은 있는데 부어서 마실 우유가 없을 정도의 가난이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동네에서 만난 아이의 발차기에 감탄하고, 길고양이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넬 줄 아는 작가의 일상은 로큰롤처럼 열정적이고 자유롭고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 성공하는 삶의 방법이 넘쳐나는 요즘, 나눠 더 가난해지지 않는 삶과 살고 싶은 하루에 집중하는 일상을 풀어낸 작가의 담백한 고백,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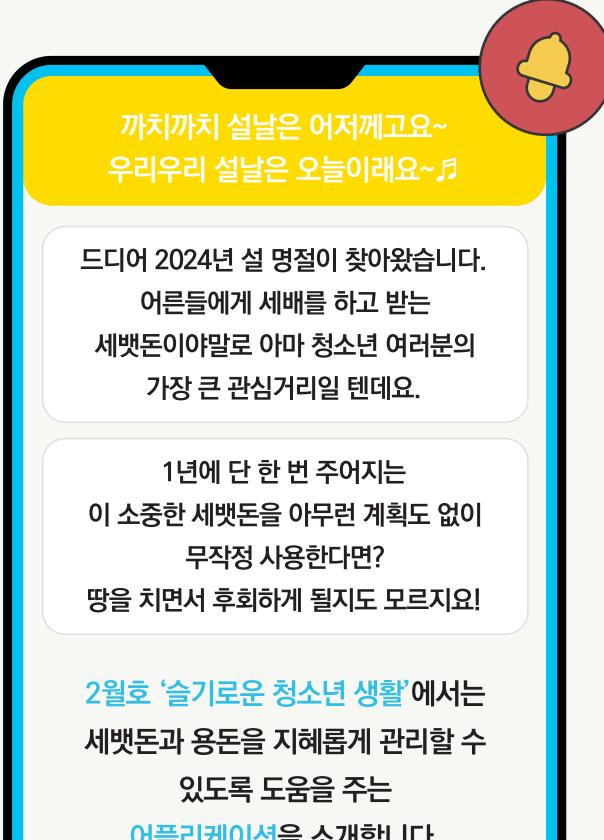


이은주 보평고등학교 사서교사

글을 읽고 쓰는 일이 사회를 바꾸는 일임을 굳게 믿고 실천하려는 사서교사입니다. ‘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아직 좋아하는 책을 만나지 못했을 뿐’. 그러기에 오늘도 사회를 바꿔나갈 학생들에게 책과의 소개팅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세뱃돈 관리는 어떻게?

청소년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돋는 APP 소개



용돈생각 (안드로이드)

용돈을 쉽게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복잡한 내용 대신 심플한 인터페이스를 원하는 청소년에게 추천해요. 잡다한 기능은 최대한 줄이고, 지출, 수입, 저축 등 핵심 관리 기능만 들어가 있답니다. 처음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각 화면마다 도움말을 제공해요. 귀여운 팬더 캐릭터의 이미지 변화로 현재 나의 상태를 쉽고 재미있게 체크할 수 있답니다.



아이부자 (안드로이드/IOS)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가족이나 친구, 친척 등과 앱을 통해 용돈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정기 용돈 보내기'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이 깜빡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보낼 수도 있답니다. 앱을 함께 사용하는 멤버들과 힘을 합하여 목표금액을 모으거나, '집안 일 거들기', '방 청소'와 같은 다양한 미션을 통해 스스로 용돈을 벌어볼 수 있어요. 마음을 나누고 싶은 기부단체에 이용자가 모은 용돈을 후원하는 기능도 있답니다.





DP

DAILY PAY (안드로이드/iOS)

내가 목표한 예산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썼는지, 며칠 남았는지 일일이 계산하기란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데일리 페이는 일주일, 혹은 한 달씩 특정 기간 동안의 사용 예산을 미리 세우고, 이를 관리하는데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쉽고 빠르게 지출과 수입 내역을 기록할 수 있고, 계획예산 대비 얼마를 지출했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가능해서 알뜰한 소비생활 돋습니다. 더불어 사진과 메모를 첨부할 수 있어 상세한 내용 기록이 가능하고, 가장 많이 쓴 달부터 가장 적게 쓴 달까지 다양한 통계 그래프와 자산현황을 보기 쉽게 제공합니다.



아이쿠카 (안드로이드/iOS)

아이쿠카는 금융 관리와 경제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앱이에요. 용돈 관리는 물론 저축, 투자, 경제 공부, 연령별 소비 분석 등 빅데이터 기반을 통해 매우 다채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십대 맞춤 경제교육 콘텐츠 '쿠카뉴스'는 금융지식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에요. 배운 내용은 퀴즈를 통해 다시 한 번 점검받을 수도 있답니다. 일일 소비 한도를 설정하거나 용돈 사용 패턴을 체크할 수도 있고, 스스로 목표를 정한 후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용돈을 벌어보는 챌린지 기능으로 성공 습관을 키워볼 수도 있습니다.



2024 한·일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현장 스케치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1월 5일과 6일,
일본 도쿄의 야스다중고등학교와 함께
‘2024 한·일 청소년 국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일 청소년 국제 문화교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교보교육재단과 야스다학원이
2018년부터 함께 운영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일본 야스다학원의 청소년 30명이 한국을 방문해,
교보교육재단의 리더십 프로그램 ‘체.인.지’ 참가 청소년 30명과 함께
이틀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교보교육재단 최화정 이사장]



[아이스 브레이킹]



[야스다 중고등학교 이나무라 타카오 교장]

교보교육재단 최화정 이사장님과 야스다 중고등학교 이나무라 타카오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한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따스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아직은 서먹서먹한 친구들을 위해 시작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가위바위보를 하며 진사람 얼굴에 스티커 붙이기, 포스트잇에 얼굴 그려주기 등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했어요. 한국과 일본 친구들의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어지며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서울 관광 지도를 기반으로, 팀별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했어요. 한국과 일본 학생들은 경복궁, 광화문, 인사동 등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를 방문하고, 한국의 먹거리를 체험해보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한일 리더십 교육]

이튿날에는 서울대학교 재능공유연구랩(TDCL) 선생님들과 함께 ‘의사소통능력을 발휘하여 사회문제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한일 리더십 교육을 진행했어요. 참가자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소통했고, 국제적인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으로 모두가 맛있는 삼계탕을 먹은 후에는 각 조의 발표가 진행되었어요. 일본 학생들은 사전에 조사해 온 한국의 ‘먹거리’, ‘건축물’, ‘교육’, ‘공업’, ‘관광’, ‘예능’ 등의 주제를 발표하며,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각 조원들의 공통점, 탐방 장소, 활동 소감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교보교육재단 최화정 이사장님의 깜짝 시상도 있었습니다. ‘어떡해송’ 노래를 불러 친구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한 OKADA IKI 학생에게 일본에서 요즘 가장 핫하다는 르세라핌 앨범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국과 일본 학생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보관할 롤링 페이퍼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간직하고 싶은 서로의 마음을 표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일 청소년 발표]





[서로의 마음 남기기]

또한 함께 활동한 조원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나누는 교환식도 가졌습니다. 몇몇 한국 친구들은 일본어로 직접 작성한 편지도 함께 전달해 일본 학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어요.

교보교육재단 이사장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교보문고 디퓨저를 직접 선물하기도 했고, 행사 진행을 봄주신 카스쌤은 직접 만든 캘리그라피를 학생들에게 선물해주었습니다.

교보교육재단 최화정 이사장님과 야스다 중고등학교 이나무라 타카오 교장선생님의 격려말씀으로 프로그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학생들이 이번 교류 경험을 평생의 추억으로 잘 간직하기를 바란다면서, 한일 상호간의 문화 이해의 폭을 넓혀 더 나은 미래 한일 관계를 위한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양혜원 학생과 일본의 OIZUMI NOA 학생이 통역 없이 상대국의 언어로 활동 소감과 마무리 인사를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으며 함께 소통했던 경험은 학생들에게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친구들은 서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교보교육재단은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류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메일 등록으로,
교보교육재단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바쁜 일상 속, 번번히 중요한 혜택을 놓치는 여러분을 위해 교보교육재단이 준비했습니다.

이메일만 등록하신다면, 재단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교육 트렌드, 이벤트, 청소년 공모전 소식, 학부모 강좌, 가족캠프와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 웃음과 감동이 담긴 참사람 사연 등 다채로운 정보들을 안내합니다.

간단한 이메일 등록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보세요.